

영양 ‘황초굴’ 어메니티 자원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김지혜 · 김해규 · 이상민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사.....	3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1절 연구범위.....	5
제2절 연구방법.....	5
제3장 조사 분석.....	6
제1절 유형별 체험현황, 체험활동조사 분석.....	6
1. 체험마을 지역별 분포현황.....	6
2.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비교.....	9
제2절 황초굴 현황조사 및 분석.....	11
제3절 계획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14
제4장 황초굴 어메니티 공간계획.....	16
제1절 황초굴 공간 계획.....	16
제2절 황초굴 체험 프로그램 계획.....	20
제5장 결론.....	24
참고 문헌.....	26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급속하게 도시화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침체되어가는 농촌사회의 실체와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보전·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민족들은 오래 전부터 농촌 생활을 기반으로 살아오고 있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경제적 혜택 속에 살아오고 있지만, 자연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찾아 갈망하며, 도시와는 상반되는 농촌자연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자연이 풍부한 농촌지역을 많이 찾고 있으며 고급호텔이나 콘도미니엄보다는 농촌민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농촌 마을을 관광농촌 공원화하여 도시민을 농촌지역으로 유인되어야 하며(류선무, 1998: 163).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 특성에 맞으며, 이용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경진 외 2인, 2007: 73).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개발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600년경 담배작물이 전파되어 주로 충북, 경북, 강원도의 산간오지에서 큰 일교차를 이용하여 황색초(담배)를 재배하였

으며, 이러한 담배는 70년대까지는 생산량의 전량을 정부에서 구매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보장이 되어져 농촌의 대표적인 환금작물(換金作物)로 농민들의 경제를 보장하였으며, 담배잎을 말리던 건조창고인 ‘황초굴’<sup>1)</sup> 역시 산간오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농촌의 훌륭한 경관자원이었다. 그러나 1970년 후반에 이르러 담배농사를 고추, 마늘 등의 농사로 대체하면서부터 영양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 농촌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황초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대부분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이었으며, 농촌의 서민전통자원이라 할 수 있는 ‘황초굴’에 관한 연구나 자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황초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는 연구·보전·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전통이란 말은 지속성과 변화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박은식, 2003: 38). 전통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등을 살펴볼 때,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 단편적이며, 체계적·다양화되지 못한 프로그램의 산재와 개발사업 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잠재되어진 농촌 자원의 활용과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접 체험적 공간을 단계적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1) 영양군에서 담배잎을 말리던 건조 창고를 지칭하던 용어

##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잊혀져가고 있는 농촌 전통문화를 알리고, 훼손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재발견하여 농촌사회의 발전방향과 문화 생산력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경제적 자원을 활성화하며, 특색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또, 현재 사업진행중 이거나 계획 중인 체험마을을 살펴보고, 그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황초굴’ 이라는 특색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농촌지역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체험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사

농촌 마을 자원은 경제적으로 활용방법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김진경 외 2인, 2004: 3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개발 계획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특색 있고 전통적인 프로그램 개발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엄봉훈(2006: 128-129)은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 분석을 통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포털사이트를 분석하고 그 중 그린투어 사이트를 중심으로 체험 유형별, 계절별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를 통하여 다양하지 못한 체험 활동과 겨울철 체험 활동의 부족함, 이용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경진(외 2인, 2007: 82)은 정부지원 농·산촌마을 체험프로그램 분류기준 및 특성분석이라는 연구에서 정부지원 체험프로그램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분석, 체험프로그램 유형분류, 분류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보편적인 농촌생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은식(2003: 42)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 생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세시풍속의 종류를 조사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의 연계 범안을 모색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고 전통적 전반에 대하여 인식 할 때 문화적 영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이 구성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계획 연구사례로 윤성수(외 4인, 2006: 50)는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한 노하석권역 농촌마을 계획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농촌개발 방향을 구상하고 농촌 마을 개발계획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농촌장수마을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김묘정 외2인, 2007),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신상섭 외3인, 2007), 제주도 농촌지역 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최용복, 2006) 등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황초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황초굴’이라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공간계획과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계획범위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로 소계마을은 63세대, 인구 129명으로 이루어진 고추, 담배를 재배하는 영양군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제2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체험마을 사이트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체험마을 조사(표 1 참조)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을 포털사이트와, 직접 기관에 확인조사로 이루어진 체험마을 중,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팜스테이마을(227개 지역)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보화마을(304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분포정도를 파악하고 체험유형들을 조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유추하여 이 연구를 통해 보완 방법과 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현장 조사는 영양군 석보면의 삼의리·소계리와 입암면의 금학리 세 곳의 부지를 계획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수렴, 석보면 소계리로 부지를 계획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황초굴 형태, 기능, 사용방법 등을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개발지에 대한 특성부여와 공간 계획요소를 선정하고, 황초굴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계승·재현하고자 한

다. 또한 황초굴의 형태별, 기능별, 체험분류별로 공간배치에 따른 위치선정을 채택하여, 그 공간에 기존의 체험마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자 한다.

### 제3장 조사 분석

#### 제1절 유형별 체험현황, 체험활동조사 분석

##### 1. 체험마을 지역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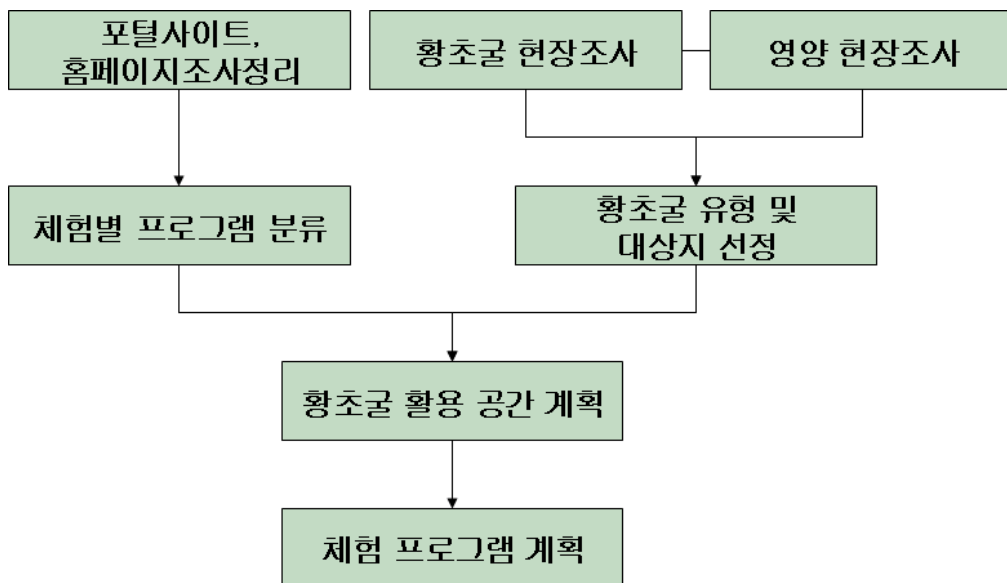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과정도

체험마을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

통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어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수량을

표 1. 체험마을의 지역별 분포현황 분석표

유형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사업추진기관
정보화마을	40	55	29	44	40	34	36	15	11	304	행정자치부
팜스테이마을	37	35	29	28	34	22	27	10	5	227	농협중앙회
녹색농촌체험마을	44	29	31	33	23	42	47	18	9	276	한국농촌공사
농촌전통테마마을	12	12	8	8	12	13	18	5	3	91	농업진흥청
산촌 체험마을	16	7	11	12	11	14	12	10	0	93	산림청
어촌 체험마을	7	12	18	7	26	4	7	0	6	87	해양수산부
계	156	150	126	132	146	129	147	58	34	1,078	

자료출처 : 포털사이트 참조

한국농촌공사, 해양수산부 직접 전화인터뷰 조사

파악하여 표 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체험마을 수를 정리하였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체험마을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 1의 내용과 같이 각 유형별 마을마다 프로그램과 체험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 156개 지역, 경기 150개 지역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 34개 지역, 충북 58개 지역으로 비교적 작은 수의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표 1에서 체험마을의 유형에 따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화마을 304개 지역, 녹색농촌체험마을 276개 지역, 팜스테이마을 227개 지역으로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행중인 체험마을의 지정 수보다 더 많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산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어촌마을은 지역적 특성에 국한지어 지정된 체험마을로서 전체 체험마을 지정수가 많이 적은 곳으로 조사 되어졌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분류 기준을 정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그린투어’ 사이트에 등재된 테마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린투어’ 사이트에서는 농촌생활체험, 어촌생활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건강/레포츠/기타 체험 등의 6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촌체험과 문화재의 활용 체험 내용에

**표 2. 주제별 체험활동 분석표**

주 제	체 험 활 동 종 류
농촌생활(문화)체험	과수원체험, 씨앗파종, 모심기, 농기구타기, 허수아비만들기, 꿀따기 등
농 산 물 체 험	감자·고구마캐기, 밤·도토리줍기, 딸기따기, 포도따기, 사과따기, 참외따기, 기타 과일 따기 행사 등
산 촌 체 험	송이채취, 고로쇠수액채취, 산머루따기, 산나물채취, 계곡물놀이 등
어 촌 체 험	해돋이행사, 낙조체험, 갯벌체험, 모래찜질, 머드체험, 해수욕, 바다낚시, 조개줍기, 염전 체험 등
전통 문화 체험	연날리기, 장담그기, 썰매타기, 짚신공예품만들기, 목만들기, 천연염색, 국궁체험, 쥐불놀이, 두부만들기, 떡만들기, 한과 만들기 등
문 화 재 체 험	문화재명소체험, 석성관광 등
자연 생태 체험	곤충채집·물고기잡기, 별 관찰, 반딧불이 관찰, 가재잡기, 야생화 체험, 철새탐조, 다슬기 줍기 등
레저/건강체험	래프팅, 황토길 걷기, 숲길체험, 자전거 하이킹, 서바이벌, 등산, 모노레일타기, 해변레포츠 축제 등
기타축제·테마체험	온천, 캠프, 황토찜질방체험, 단풍축제, 테마관광 등

자료출처 : 그린투어 사이트([www.greentour.or.kr](http://www.greentour.or.kr))참조

대한 언급이 없으며, 농촌생활체험은 농산물체험과 농촌문화체험, 산촌체험 등이 한 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어 농업관련 체험과 농촌·산촌에서의 체험들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특징적인 체험 유형을

살펴 볼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체험 분류를 하는데 있어 이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시켜 주제별 체험활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체험분류 기준을 그린투어 사이트에 분류되어진 활동 주제와 각 체험마을의 홈페이지에 분류하여 소개 되어져 있는 활동, 정부지원 농·산촌마을 체험프로그램 분류기준 및 특성분석(이경진 외2인, 2007 :73-82) 연구를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각 체험마을의 체험 활동들을 주제별로 농촌생활(문화)체험, 농산물체험, 산촌체험, 어촌 체험, 전통문화체험, 문화재체험, 자연생태체험, 레저/건강체험, 기타 축제·테마체험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 2.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비교분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정보화 마을과 팜스테이 마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기(정보화마을 55개, 팜스테이마을 35개)와 강원(정보화마을 40개, 팜스테이마을 37개)은 비교적 많은 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정보화마을 15개, 팜스테이마을 10개)과 제주(정보화마을 11개, 팜스테이마을 5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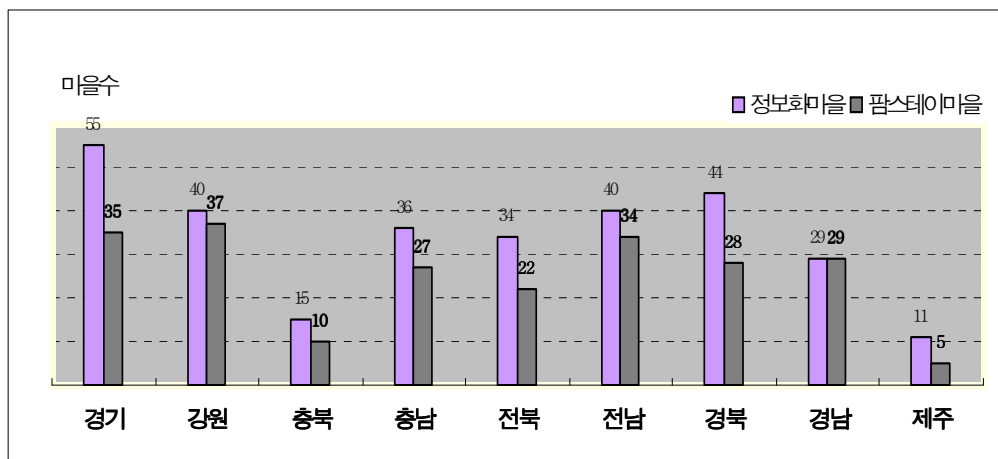


그림 2.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지역별 지정현황(개소)

은 비교적 많은 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정보화마을 15개, 팜스테이마을 10개)과 제주(정보화마을 11개, 팜스테이마을 5개)는

비교적 작은 수가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 경북과 제주에서는 정보화 마을과 팜스테이마을의 마을지정수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별 분류에서는 각 지정마을에서 나타난 체험 프로그램 중 그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활동이나 행사, 그리고 그 마을의 특색을 나타내어주는 주 체험 프로그램이 되는 유형을 두 가지로 선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정보화마을에 소개되어있는 체험활동을 유형들을 살펴보면 정보화 마을 (304개 마을)중 가장 많은 활동으로는 농산물 체험(38.5%)과 농촌 생활문화체험(28.5%)이 제일 많이 있는데 이는 각 마을마다 대부분 자기 고장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산물 관련 체험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체험(11.5%), 어촌체험(8.9%), 산촌체험(8.1%), 레저/스포츠와 자연 생태체험(1.5%), 기타(0.9%), 문화재체험(0.5%)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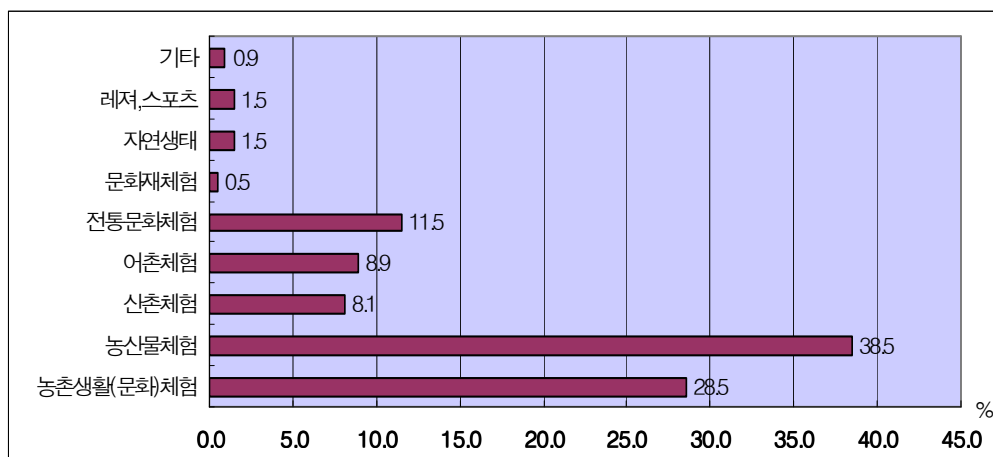


그림 3. 정보화마을 체험활동 유형 분석도

그림 4는 팜스테이마을의 체험활동 유형으로 팜스테이 마을 (227

개 마을)중 가장 많은 활동으로는 농산물 체험(26.2%)과 농촌 생활 문화체험(22.2%)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역시 각 마을마다 대부분 자기 고장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산물 관련 체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통 문화 체험(16.4%), 산촌체험(11.7%), 자연생태체험(7.3%), 기타(6.3%), 어촌 체험(6.1%), 레저/스포츠 체험(3.7%)순으로 정보화 마을에 비해 전통문화체험(4.9%), 산촌체험(3.6%), 자연생태체험(5.8%), 기타(5.4%), 레저/스포츠체험(2.2%)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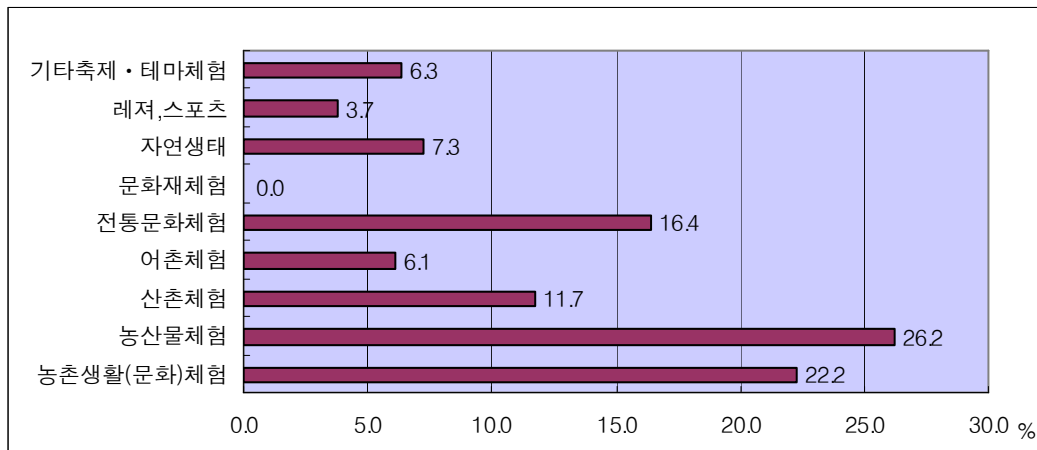


그림 4. 팜스테이마을 체험활동 유형 분석도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생활(문화)체험과 농산물 체험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체험유형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나 찾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 제2절 황초굴 현황조사 및 분석

농업진흥청 농촌자원개발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2006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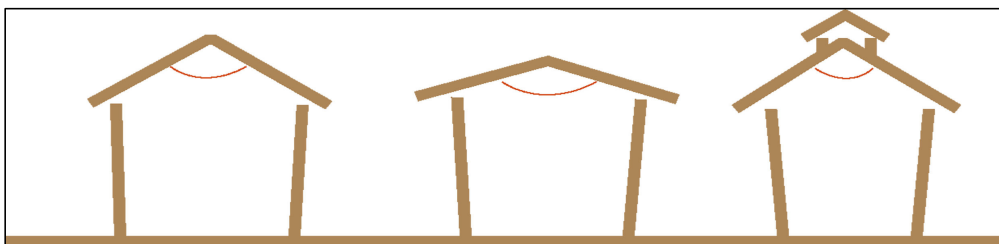
2년간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 수행 중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20개리) · 입암면(19개리) 현장조사 중 한 지역이 아니라 영양의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 진흙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모습의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진 건조물을 볼 수 있었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건조물이 황색초(담뱃잎)를 건조하던 예전의 건조창고임을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창고나 고추 건조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은 예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건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현장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시골 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전통적 건조물이며, 서민들이 오랫동안 활용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건조방식 · 전통적인 의미 등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 같은 황초굴의 모습들은 2007년 농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기간 중 경상북도 중북부지역에 위치한 문경의 문경시(31개리) · 마성면(18개리), 예천의 상리면(10개리) · 하리면(16개리) · 용문면(26개리), 의성군 가음면(18개리) · 금성면(39개리)등지에서도 영양에서 보았던 황초굴의 모습들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2년에 걸친 어메니티 자원 조사 시 세밀하진 않지만 황초굴의 개략적인 수량을 조사를 하였으며, 영양군은 현장답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황초굴을 조사하였다.

지역적으로 조사 되어진 황초굴의 형태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으로 나타난 황초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해 볼 수 있다.



그림 5. 경상북도 지역별 황초굴 현황 조사



영양·문경 지역

예천 지역

의성 지역

그림 6. 경상북도 황초굴의 형태적 유형 분류

먼저 영양·문경 지역의 황초굴의 형태는 지붕의 각도가 비교적 보기가 좋으며, 예천지역의 황초굴의 형태는 영양·문경 지역에 비해 지붕의 경사가 완만하게 생긴 것이며, 의성 지역의 황초굴은 그 중에서도 제일 급한 경사를 가진 지붕의 형태로 지붕위에 한 겹이 더 된 겹 층으로 환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비교적 많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만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수의 황초굴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 중 영양의 수량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고, 황초굴의 모습 또한 가장 무난하며,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 영양군에서 황색초인 담배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통적 건조물을 영양이라는 경관적 특징과 잘 어우러져 소중히 지켜온 것이라 생각된다.

### 제3절 계획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2006~ 2007년에 현장조사 되어진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 분석을 한 결과 영양군에서는 황초굴의 그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아직도 지역의 많은 곳에서 황색초 작물을 재배 중이므로 영양군이 황초굴이라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그 전통을 계승하고, 경관적 공간을 조성하기에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계획대상 후보지로 영양군을 선정 하였다.

이와 같이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결과를 밑바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차 후보지를 선정 하였으며, 선정 된 후보지 중 영양군의 석보면 삼의리·소계리와 입암면 금학리 세 지역을 현지답

사를 통하여 현장조사 하였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 결과를 수렴·분석하였다.

표 3. 대상지 조사현황·분석

대상지	장 점	단 점
삼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의계곡이 주변에 위치함</li> <li>· 경관우수(산림, 지형, 계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변의 자원의 다양성 부족</li> <li>· 적정 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움</li> <li>· 마을이 산재 되어 있으며, 가구 수가 적음</li> </ul>
금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학지, 운룡지 주변으로 대상부지 확보가 용이함.</li> <li>· 마을 주변 경관 양호 함(계곡+숲)</li> <li>· 예전의 황초굴 단지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중심에 축사가 있음 (악취, 수질오염)</li> <li>· 길이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짐</li> </ul>
소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 상태가 양호한 황초굴이 남아 있음.</li> <li>· 활용 가능한 폐교가 방치 되.</li> <li>· 마을 내 전통자원이 다수 (금계서당, 오류정종택 등)</li> <li>· 주변 근거리 관광자원에 접근성이 좋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원거리에 위치함.</li> </ul>

그 세 지역 중 먼저 삼의리는 마을 옆에 삼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지형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 비교적 알려진 편이나, 그 외의 개발 가능한 자원이 절대부족한 편이며, 현재 계곡 주변으로 개인 소유의 펜션 들이 산재 되어 있다. 금학리는 금학지와 운룡지 등 계곡중심의 수자원이 풍부하며 개발 가능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방치된 황초굴 단지가 남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윗마을의 길이 협소하며 마을 중심 도로 좌우에 축사들이 위치하여

그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 소계리는 마을과 인접한 곳에 개발 대상지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황초굴이 남아 있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마을 곳곳에 금계서당, 오류정종택, 오류정 등의 전통자원들이 있고, 폐교가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3과 같은 장단점 분석 결과를 밑바탕으로 황초굴 어메니티 계획



그림 7. 계획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소계리로 선정 하였다.

## 제4장 황초굴 어메니티 공간계획

### 제1절 황초굴 공간 계획

2006년, 2007년에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하던 중, 경북 북부 지역에 담배 잎을 건조하던 건조창고인 ‘황초굴’이라는 전통자원을 알게 되었다. 경북 문경, 예천,

영양, 의성 등의 지역에는 ‘황초굴’ 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양’ 에서 특히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영양군이 담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영양의 황초굴은 현재까지 주위 환경과 어울려,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황초굴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그림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월군 영월읍 문산 2리에서는 담배건조장 이미지를 활용해 도농교류 체험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건조장의 외형적 특성만을 가지고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일면 황초굴 이미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진흙 대신



**그림 8.** 영월군의 담배건조장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사례.

에 적벽돌로 건물의 외형을 구성하였고, 현대식 창과 기와를 사용하여 이상한 맨션과 같은 분위기다. 이와 같은 현대주거양식의 모습으로는 황초굴 본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황초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황초굴에 관한 역사와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외벽은 황초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벽과 바닥 등은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황초굴을 집단화 시켜 조성하는 방법이다. 환경사지에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갖는 황초굴 3~4동의 건물로 둘러싸인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특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공간이 황초굴의 건물로 모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강한 전통 경관적 이미지를 부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전통적 황초굴의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모더니즘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공간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부여시키고,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기존의 황초굴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단체로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다양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통적, 경관적, 기능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황초굴 어메니티 공간을 개발한다면 누구에게나 쉽게 이미지와 의미를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영양군 입암면 소계리의 대상 지역에 공간별로 기능을 부여한 계획을 그림 9와 같이 설계하였다.

A 지역은 환경사지에 담배 잎과 고추를 말리는 건조장 기능을 갖춘 황초굴을 두고, 그 앞에 담배 밭과 고추밭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수확의 체험을 하며 또한 전통 방식대로 건조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황초굴을 집단화시켜 전통 경관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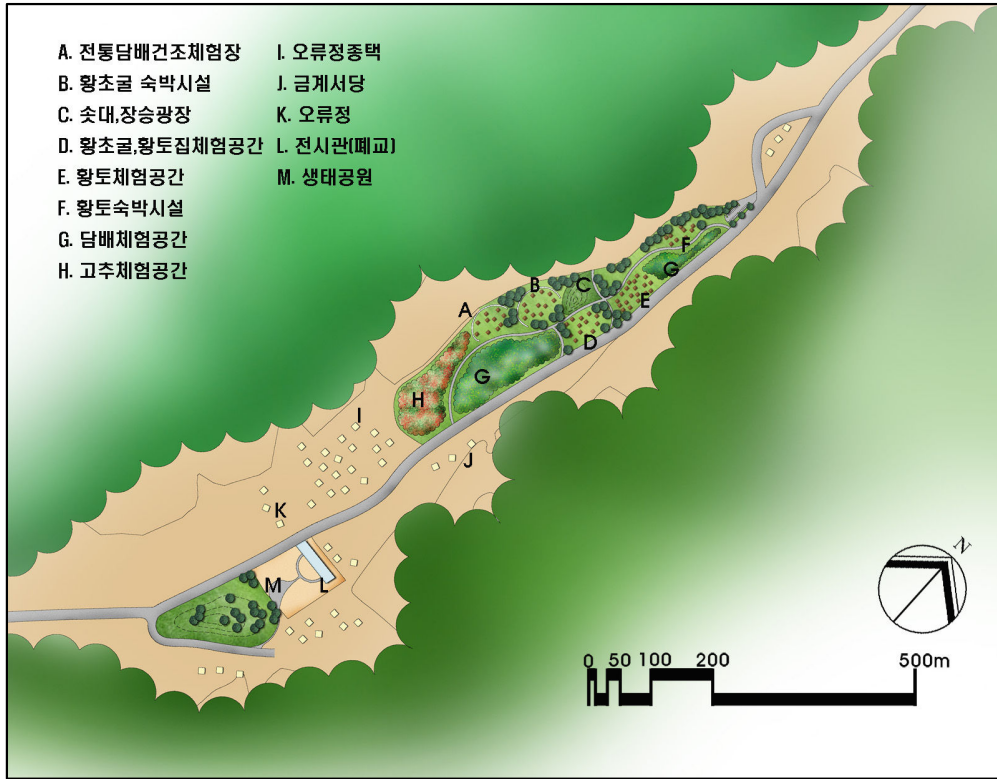


그림 9. 황초굴 어메니티 자원 개발 계획 마스터플랜

구성하며 그 주변엔 몇 개소의 웅덩이를 만들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웅덩이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부여하였는데 그 기능으로써 황토마사지를 하는 곳과, 미끄럼놀이, 그리고 황토 염색을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용자들의 직접 황초굴 황토집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황토벽돌을 제작하고, 그 벽돌로 벽을 쌓으며 짚단 지붕 없기를 함으로서 황초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체험들은 황초굴의 경관적 이미지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황초굴에 많은 관리비용을 두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였다.

B 지역은 황초굴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바꾸어 숙박시설 형태로 군락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황초굴 형태의 관망대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숙박시설과 관망대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조성하였다.

또 황초굴에 장작불을 떼어 황토온돌방체험을 하게 하였고, 이용자들의 수에 구애받지 않도록 황초굴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C 지역의 황초굴은 원래의 형태를 갖춘 황초굴을 몇 개 두며, 폐교를 활용하여 외곽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황초굴 역사관, 체험관을 조성하여, 역사관에서 본 황초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 노거수를 활용하여 이용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두고, 생태공원을 만들어 자연과 학습체험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 제2절 황초굴 체험 프로그램 계획

황초굴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조성 되어진 황초굴 마을 조성에 있어 조사 분석 시 체험마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체험마을 유지를 위해 농산물 판매나 숙박을 중심으로 특색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 영양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앞의 조사된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영양군만의 개성을 찾고자 전통 황초굴

황토집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폐교를 활용하여 담배 잎과 고추를 건조시키던 황초굴의 역사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황초굴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알리는 것으로 하며 다기능 (도서관, 휴게실 등)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주민의 편의와 방문자들이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폐교의 외벽은 영양의 붉은 진흙으로 마감처리 한다.

또 폐교 외부공간에는 폐교가 전시관의 역할을 함에 따라 황초굴의 원래 기능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2개 정도 두어 전시관에서 황초굴을 공부하고 밖으로 나와 실제 황초굴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 차를 타고 오면서 폐교 안 황초굴이 보이므로 그 곳이 황초굴의 전시관인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학교 안에 있는 노거수를 활용하여 이용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생태 공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시골의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통 황초굴 황토 집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치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황초굴을 이용자와 함께 황토벽돌을 쌓아 외벽을 만들고 짚단으로 지붕을 엮어 얹으며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하여 이용자에게 의해 보수되고 새로 만들어짐으로서 따로 유지 관리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지정된 체험마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마련해 놓은 시설을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점인데, 지원비와 체험마을에서 벌어들인 수입만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수가 적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직접 만들어보고 보수해 가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는 황초굴에 관한 호기심 해소와 새로운 지식, 보람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놀이 공간 조성이다. 체험 프로그램 중 다른 하나로는 동적인 체험활동도 있는데 현재 그 보다는 정적인 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황토체험을 생각해 보았다.

기존의 대부분이었던 황토로 도자기를 만드는 황토체험과는 달리 모든 방문자가 즐길 수 있게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을 부여하여 황토 놀이 장을 몇 군데 만들어 웅덩이에서 놀면서 황토마사지나 미끄럼틀을 즐기고 염색도 할 수 있는 체험을 계획하였다.

어린이들이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황토 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과 그곳에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또 다른 놀이공간을 만들고 어른들에게는 황토마사지를 즐기고 또 다른 공간에선 염색을 할 수 있게 조성하였다.

네 번째로는 대상지에 고추밭과 담배 밭을 조성하여 재배, 수확, 건조하는 것을 체험하게하고, 밭 주위에 전통적인 황초굴을 만들어 예전의 건조 방법을 체험해보고 현재 건조하는 방법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다섯 번째로는 황초굴 형태의 관망대를 마련하여 별 관측 프로그램과 황초굴에 군불을 이용하여 황토 온돌방 체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금계서당, 오류정종택, 오류정 등의 전통 건축자원과 인근에 있는 두들 마을을 연계하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근거리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총 거리가 1.1km, 총 이동시간은 도

보로 하였을 때 약 40분이 소요된다. 숙박시설에서 전시관(폐교)까지의 거리는 450m이고 시간은 15분이 걸리며, 전시관에서 오류정까지는 150m · 5분, 오류정에서 오류정종택까지는 250m · 8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총 체류시간은 약 2시간40분 정도가 걸린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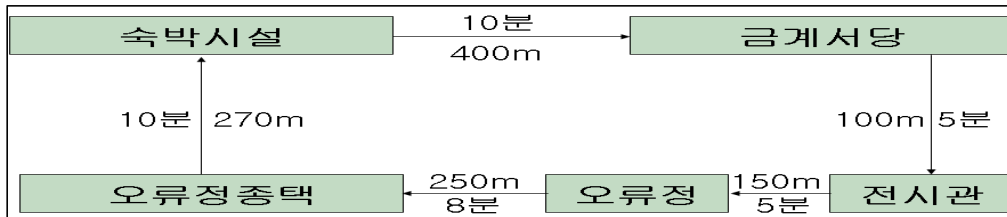


그림 10. 근거리 탐방 코스 프로그램

원거리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소계리를 출발하여 두들 마을의 전통마을 답사와 남자현 열사 생가 방문, 봉감모전 5층 석탑을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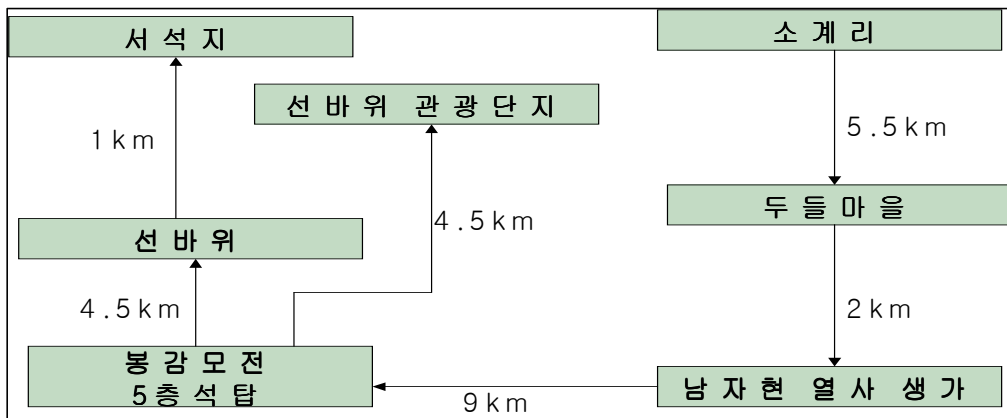


그림 11. 원거리 탐방 코스 프로그램

하여 선바위 주변 경관을 감상한다. 이후 정영방의 별서인 서석지 유적을 탐방하고 영양고추 홍보관과 수석분재 전시관이 있는 영양 선바위 관광단지를 관람할 수 있는 탐방 코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탐방거리는 총 25.5km 이며, 차량 이동시 60km/s로 갔을 때 약 30분의시간이 소요가 된다.(그림 11)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잊혀져 가고 있는 황초굴이라는 전통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통의 지속성과 변화성이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황초굴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린투어 사이트들의 체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농업과 관련된 체험들이 많았고, 그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된 체험활동들이 적었다.

2) 체험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보화 마을과 팜스테이 마을에서는 농촌생활(문화)체험과 농산물 체험들이 많았다. 그러나 팜스테이 마을에서는 문화재 체험활동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 체험프로그램 분석결과처럼, 대부분의 마을들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양군의 특성을 살린 전통 황초굴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4) 2006년 및 · 2007년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수행하면서 유용한 “황초굴” 자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자원은 특히 현재까지 담배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영양군에서 두드러지게 조사 되었으며, 영양군의 자연적 경관과 잘 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지를 영양군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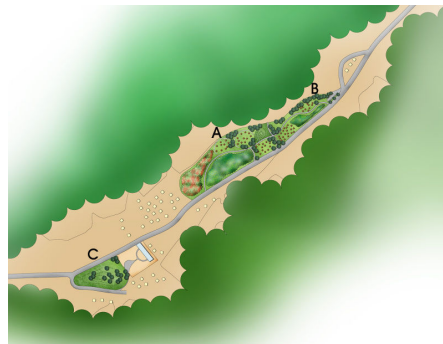
5) 본 연구 대상지인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부지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황초굴이 남아 있

고, 마을 곳곳에 금계서당, 오류정 종택, 오류정 등의 전통자원들과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폐교가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황초굴 에메니티 자원 개발 계획 대상으로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6) 황초굴이라는 전통자원을 현 농촌계획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황초굴의 형태를 유지하며 기능적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는 방법, 두 번째로 그 형태를 유지하되 크기나 기능적 성격을 다양화하여 조성하는 방법, 세 번째로 황초굴의 특징만을 이미지화하여 다기능의 복합적성격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통적, 경관적,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킨 공간을 개발한다면 쉽게 그 이미지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연구대상지의 공간계획은 A B C지역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A 지역은 환경사지를 이용하여 담배밭·고추밭을 마련하고 그 주변으로 황초굴의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그 기능도 동일한 건조창고를 조성하여, 건조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황초굴을 군락으로 조성하여, 그 자체로 경관적 이미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황토마사지·황토염색등의 각기 다른 기능을 부여하여, 다양한 체험장이 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 한다.

B 지역은 기존의 황초굴 외형을 그대로 활용하며, 내부는 다른 기능들을 채택하여 온돌방 체험, 별관측 체험등의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한 크고 작은 규모의 황초굴 단지를 조성 한다.

C 지역은 폐교를 활용하여 건물의 외형을 영양 황초굴의 주재료 인 붉은 진흙으로 외장 처리하여 전시관을 마련하고, 주변에 다양한 전통적 체험공간 마련과 학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황초굴” 이라는 전통자원을 활용한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한 부분설계, 조감도, 실시설계 등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학부 논문으로서는 범위를 넘어 선다고 판단하여 추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1. 권용대, 홍종숙(2003),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경제성 분석, 농촌계획 9(3) : 17-23.
2. 김남조(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 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28(1) : 263-281
3. 김묘정, 김혜민, 조순재(2007), 농촌 장수마을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농촌계획 13(2) : 107-120.
4. 김범수(2003),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7(2) : 43-51.
5. 김상범(200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향토자원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 : 104-111.
6. 김진경, 김혜민, 조순재(2004), 농촌자원활용 마을계획개발과정어관한 기초연구. 농촌계획 10(4) : 29-37.
7. 박은식, 박덕병, 이한기(200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9(1) : 37-46.

8. 신상섭, 노재현, 김현욱, 김홍균(2007),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 80-91.

9. 엄봉훈(2006),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분석, 농촌계획 12(4) : 125-133.

10. 윤성수, 김지현, 리신호, 서교, 김한중(2006), 어메니티를 기반으로한 노산하석권역 농촌마을 개발계획, 농촌계획 12(4) : 43-51.

11. 이경진의 2인(2007), 정부지원 농·산촌마을 체험프로그램 분류 기준 및 특성분석, 농촌계획 13(3) : 73-82.

12. 이응진(2002), 한국 그린 투어리즘의 지역 관광 진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1) : 295-311.

13. 전영미, 임상봉, 한경수, 박윤희, 장은숙, 김범수(2003), 도시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실태와 정비방향, 농촌계획 9(1) : 55-64.

14. 최선희(2004), 농촌문화체험 자원개발 상품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2) : 217-227.

15. 최용복(2006),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농촌계획 12(3) : 57-65.

16. 황길식, 엄서호(2005), 농촌관광체험이 농촌어메니티에 미치는 영향, 농촌관광연구 12(2) : 97-115.

17. 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http://www.go2vil.org)), 농업진흥청

18. 팜스테이마을([www.farmstay.co.kr](http://www.farmstay.co.kr)), 농협중앙회

19. 어촌체험마을([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 해양수산부

20. 산촌마을([www.san.go.kr/village](http://www.san.go.kr/village)), 산림청

21. 정보화마을([www.invil.org](http://www.invil.org)), 행정자치부
22. KT&G([www.ktng.com](http://www.ktng.com))